

광양항 2단계 2차 컨테이너부두 준공식 축사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광양항이 또 한 번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훌륭한 부두가 준공되기까지 밤낮없이 수고해 온 항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아울러 광양항 건설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전남도민과 광양시민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광양항에 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칩니다. 광활한 부두와 그 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면서 광양항이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광양만권 2,700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13조원이 투입될 이 계획

이 완료되면 광양만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광양지구는 물류와 비즈니스, 울촌과 하동지구는 신소재 등 첨단 생산기능, 화양지구는 관광·레저, 그리고 신덕지구는 교육·의료와 R&D 중심지로 각각 거듭나게 됩니다.

이러한 비전의 중심에 바로 이곳 광양항이 있습니다. 지금 전남과 정부가 함께 계획하고 추진하는 서남해권 개발계획이 완료되면 통영과 함께 광양항은 남해안의 중심지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광양항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앞으로 현재의 3배에 가까운 총 33선석의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22만평에 이르는 배후 단지를 개발하고, 그곳에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유치해서 국제 물류센터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유수의 물류기업들이 광양항의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항만배후 부지 59만평을 올해 안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감면, 부지의 무상임대, 항만사용료 인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광양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광양~전주간 고속도로와 광양~순천간 철도 복선화 등 연결교통망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광양항은 지금보다 미래에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개발이 착착 이루어지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확인하고 챙기겠습니다. 제 임기 동안 완전하게 시동을 걸어서 다시는 멈출래야 멈출 수 없도록 확실하게 토대를 구축해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동북아에서 항만 한다고 할 때 우리보다 나은 여건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의 항만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중심항 선점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모두가

우리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간다면 이러한 도전은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항만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여 가야 합니다. 운영 시스템을 혁신하고, 전체 물류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해 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류 항만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항만 연관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의 대표적인 물류 클러스터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번 광양항을 찾아온 선박은 계속해서 찾아오고, 한 번 광양항에 자리잡은 기업은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광양항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